

## 고흥식 삼성토탈 사장 프랑스 최고훈장 수훈



삼성토탈은 고흥식 사장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최고 훈장인 Legion d'honneur를 수훈했다고 9월21일 발표했다.

고흥식 사장은 프랑스 대표기업인 Total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8억달러의 산업자본 투자를 성사시켜 한국-프랑스 협력 성공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했다.

고흥식 사장은 프랑스 최고훈장 수훈 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훈장을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 삼성 토탈을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해 양국간 협력과 우호를 한층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tal은 2004년 10월 전체 화학제품 매출의 30%인 매출규모 50억유로(64억달러)의 화학사업을 분사한 바 있으며, 삼성토탈도 당시 회사명을 삼성Atofina에서 개명했다.

Total의 화학사업부인 Atofina도 회사명을 Total Chemicals로 변경했으며, 2003년 매출은 173억유로, 영업이익은 5억5800만유로

를 기록했다.

Total의 화학 플랜트는 프랑스 40개를 포함 유럽 60개, 미국 20개, 아시아 20개 등 100개를 보유하고 종업원 수도 1만9300명에 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22>